

광주시체육회 수영 백수연 “3회 연속 올림픽 가즈아~”



백수연

오늘부터 열리는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서 평영 100m·200m 출전
김서영도 3회 연속 도전... '한국 수영 희망' 황선우 생애 첫 출전 노려

광주시체육회 백수연이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에 도전한다.

대한수영연맹은 13일부터 닷새간 제주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에서 2021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국제수영연맹(FINA)이 승인한 이 대회는 오는 7월 개막할 예정인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를 뽑는 자리다.

서른 살의 맏언니 백수연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꿈꾸며 평영 100m와 200m에 참가한다.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 도전 무대다.

그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7회, 아시안게임 4회, 올림픽 2회 출전 경력의 베테랑이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면 2012런던, 2016리우에 이어 자신의 세 번째 출전 올림픽이 된다.

그는 지난 2005년 6월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8년까지 4년 연속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 일반 평영 200m, 100m 결승에서도 1위를 차지해 광주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다.

당시 백수연은 여자 평영 200m 준결승 1주에서 2분26초29로 완주했다. 준결승 진출자 16명 중 13위에 머물러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결승의 하한선은 준결승 8위였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혼영 200m 금메달리스트인 김서영(경북도청)은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노린다.

김서영은 이번 대회 개인혼영 200m와 접영 100m에 출전한다.

개인혼영은 한 선수가 일정 거리를 접영-배영-평영-자유형 순서로 헤엄쳐 시간을 다투는 종목으로 모든 영법을 두루 잡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김서영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개인혼영 400m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현재 개인혼영 200m와 400m 모두 한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혼영 400m 대신 접영 100m에 도전장을 냈다.

이 때문에 여자 접영 국내 최강으로 꼽히는 안세현(울산시청)과의 자존심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안세현은 이번 대회 접영 세 종목(50m·100m·200m)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세현은 여자 접영 100m(57초07)와 200m(2분06초67)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7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때는 접영 100m에서 5위, 200m에서 4위에 올라 한국 여자 수영 선수로는 역대 대회 최고 성적을 잇달아 잡아치운 바 있다.



황선우



이주호

올림픽 경영 경기에는 특정 기간 FINA가 승인한 대회에 출전해 '올림픽 자격기록'(Olympic Qualifying Time-OQT), 이른바 A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 중 종목별로 한 나라에서 두 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 개인 기록 인정 유효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다.

만약, 이 기간 A기준기록 통과자가 1명뿐이면 그 종목에서는 해당 선수만 자국 국가대표로 올림픽 픽에 나설 수 있다.

A기준기록 통과자가 없으면 그보다 처지는 '올림픽 선발기록'(Olympic Selection Time-OST), 즉 B기준기록을 충족한 종목별 국내 1위 중

FINA로부터 초청받은 선수가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다.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 결과 총 287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 참가 신청서를 냈다. 주니어와 시니어 통틀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기록 보유자로 주목받는 황선우(서울체고)는 생애 첫 올림픽 출전에 도전한다. 황선우는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50m·100m·200m에 참가한다.

지난달 남자 배영 100m에서 약 3년 만에 새로운 한국기록을 수립한 이주호(아산시청)는 배영 세 종목(50m, 100m, 200m)에서 올림픽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강렬한 눈빛 연기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뉴나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 수영선수권 아티스틱 스위밍 솔로 테크니컬 경기에 출전한 오스트리아의 바실라키 알렉산더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나달 “도쿄올림픽 출전? 지금 상황에선 몰라”

테니스 스타 라파엘 나달(35·스페인)도 7월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 출전 여부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3위 나달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도쿄 올림픽 출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같으면 올림픽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림픽은 중요한 대

회”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나달은 올림픽에 출전해 2008년 베이징에서 단식,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때 남자 복식 금메달을 따냈고, 2012년 런던 대회에는 무릎 부상 여파로 불참했다.

최근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들이 도쿄 올림픽 개최 또는 참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다.

전날 세리나 윌리엄스(40·미국)가 “팔과 떨어

져 지낼 수는 없다”며 가족 동반이 불가능할 경우 도쿄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 일본 국적의 오사카 나옴이(24)와 니시코리 게이(32)도 나달과 도쿄 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최근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11일 오후 8시 30분 기준 하루 사이에 619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113명이 늘어 누적 1만1108명을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긴급 사태 적용 기간이 연장됐고 17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방일 계획도 연기됐다. /연합뉴스

강성훈 PGA 바이런 넬슨서 마쓰야마·람과 한조

강성훈(34)이 14일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1, 2라운드에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윤람(스페인)과 같은 조로 경기한다.

PGA 투어가 12일 발표한 1, 2라운드 조 편성을 보면 강성훈은 14일 오전 2시 44분에 마쓰야마, 람과 함께 1번 홀을 출발한다.

강성훈은 2019년 이 대회 우승자로 올해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이다. AT&T 바이런 넬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강성훈과 함께 1, 2라운드를 치르는 마쓰야마는 올해 4월 ‘명인 열전’ 마스터스에서 아시아 국적 최초로 우승한 선수고, 남자 골프 세계 랭킹 3위 람은 올해 AT&T 바이런 넬슨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다.

“디펜딩 챔피언” 강성훈은 마쓰야마, 람과 함께 편성된 주요 그룹에서 이 대회 2회 연속 우승에 도

전하게 됐다.

조던 스피스, 스코티 셰플러, 윌 찰러토리스(이상 미국) 조와 브라이슨 디샬보, 샘 번스(이상 미국), 마크 리슈먼(호주) 조 등도 ‘주요 그룹’으로 짜였다.

한편 스피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됐다고 대회 개막 전 인터뷰에서 밝혔다.

4월 마스터스 이후 한 달 정도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스피스는 “원래 2주 전부터 대회에 다시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주 코로나19 음성이 나와 이번 대회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AT&T 바이런 넬슨은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린다.

강성훈이 우승할 때인 2019년에는 같은 텍사스주의 델러스 트리니티 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대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농구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에 kt 허훈

농구전문지 ‘루키더바스켓’의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에 부산 kt 가드 허훈(26·사진)이 선정됐다.

루키더바스켓은 12일 “KBL에 등록된 10개 구단 국내 선수 15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허훈이 총 285점을 받아 250점의 송교창(KCC)을 제치고 최우수선수가 됐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은 첫째 양동근(은퇴)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19년 이정현(KCC), 2018년 오세근(인삼공사)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훈은 “저를 뽑아준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게 표를 주신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커피 한 잔씩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량발전상과 식스맨상은 정창영(KCC)이 석권했고, 베스트 5에는 허훈, 송교창, 양홍석(kt), 이대성, 이승현(이상 오리온)이 이름을 올렸다.

2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영플레이어 MVP’는 양홍석이 2년 연속 선정됐고 최우수 외국인 선수는 손 통(현대모비스), 인상적인 감독 부문은 정창영 KCC 감독이 1위를 차지했다.

블루위커상은 이승현, 24세 이하 베스트 5에는 양홍석, 서명진(현대모비스), 오재현(SK), 유현준(KCC), 김진영(삼성)이 각각 선정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2관 아들의 이름으로, 람·다라스트 챔터
- 3관 아들의 이름으로,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 4관 내겐 너무 소중한 너
- 5관 스파이얼, 비커밍 아스트리드, 키퍼스
- 6관 스파이얼
- 9관 슈퍼노바, 더 스파이
- 7관 씨네마클러 내일의 기억
- 8관 씨네마클러 비와 당신의 이야기 코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극장판 풍운아: 장난감나라 대모험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클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